

“일상서 깨어있으면 모든 것이 화두요 수행”

날마다 온몸으로 성찰하기

박영재 지음 | 비움과 소트 펌 1만 3800원



이 책 저자인 (사) 선도성찰나눔실천회 (이하 선도회) 지도법사인 박영재 서강대 물리학과 교수(사진)는 대학시절부터 입문한 참선수행 체험으로 인해 성찰의 중요성을 일찍이 깨우치고, 종파를 초월해 많은 대학생들이 성찰 문화를 익힐 수 있도록 1999년부터 서강대에 정규수업시간을 개설,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다. 현재 젊은이들의 미래에 대한 절망감은 'N포세대'라는 신조어가 생겨날 정도로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으니, 이러한 시대상황에 비추어 볼 때 이미 오래전부터 대학생들의 인생지도 그리고 자기성찰을 통해 수처자주(隨處作主), 즉 가는 곳마다 주인공인 삶을 살기 위해 스스로 활로를 개척할 수 있도록 가르침을 펼친 것은 저자의 시대를 조망하는 선견지명(先見之明)이라 아니할 수 없다.

저자는 이제 그 젊은이들이 겪는 어려움을 외면치 못해, 학교라는 울타리서 벗어나 이 땅의 모든 젊은이들이 종교를 초월해 자기성찰 문화의 큰 흐름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간 가르침의 과정들을 한 권의 책으로 엮었다. 이 책 속에는 각 개인이 처해 있는 일상 속에서 '통찰과 나눔'이 돌이 아닌 '통보불이(洞布不二)'의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는데 반드시 필요한 자기성찰의 안내 지도와, 가정과 국가를 떠받치는 인재를 성장시키는 데 밑거름이 되기를 바라는 바, 간절한 노파심절(老婆心切)이 곳곳에 배어 있

다. 따라서 이 책을 항상 옆에 두고 자기성찰의 교과서로 삼아 성찰의 삶을 지속해 나간다면 어떠한 어려움도 무난히 헤쳐 나갈 수 있는 큰 힘을 얻게 될 것이다.

저자는 전체적으로 성찰과 관련해 언어 자체를 부드럽고 평이한 일상어로 기술해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마음공부 초심자들도 이해하기 쉽도록 구성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성찰은 단지 머리로만 헤아리는 관념담어리가 아니라, 몸과 마음 그리고 실천이 다 함께 어우러져 행해지는 참된 의미의 성찰을 전제로 한다.

제 1부 초심자를 위한 첫걸음에서 성찰을 위한 이론과 실천편이 딱딱하게 느껴질 경우, 제 2부 성찰태도 익히기를 먼저 일독하여 동시대를 호흡하고 있는 대학생들의 체험담을 통해 무한경쟁시대를 100세까지 살아내야 하는 젊은이들과 공감대를 형성하여 동기부여를 한 후, 제 1부로 되돌아와서 성찰의 구체적 방법을 살펴보는 것도 이 책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될 것이다.

책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제 1부 제 1장 성찰을 위한 이론편에는 선도회의 핵심 가_POINTER 동시에 자기성찰을 위한 기초 핵심 3요소인 귀의삼사(歸依三師), 입실점검(入室點檢), 좌일주칠(坐一七) 등과 사은(四恩) 및 다종교시대를 맞이해 이종종교를 이해하기 위한 동서고금의 영적 스승들의 성찰배경을 소개해 초심자들에게 하아금 왜 성찰이 필요한지 느낄 수 있게 했다. 제 2장 성찰을 위한 실천편에서는 수식관(數息觀), 신사홍서원(新四弘誓願) 및 화두참구등을 소개하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성찰할 수 있는지 그 방법적 측면에서 접근할 수 있도록 친절하고 상세히 설명한다.

이 책의 제 2부 제3장 '넋 달 간의 집중



1999년부터 서강대에 '참선수업' 개설 '성찰' 관련언어 평이한 일상어 기술 일상서 성찰하는 구체적 방법도 소개

참선 수업'에는 서강대 학생들이 실제로 성찰을 익힐 수 있는 수업시간에 참여하는 과정을 처음부터 끝까지 낱낱이 밝혀서 성찰을 통해서 그들이 변화해 나가는 과정을 살펴볼 수 있게 했다. 특히 수강신청 이야기에서는 수강신청을 못해서 적극적으로 수강 허가를 받고자 노력하는 모습을 통해서 고리타분할 것만 같은 참선 강좌가 얼마나 인기를 끌고 있는지 단적으로 보여줘 선한 충격으로 다가온다. 수업에 참가한 대학생들의 생생한 체험담을 통해 참선을 어려워하거나 시작하고 싶은 사람들에게 큰 용기를 불러일으키게 할 것 같다.

제 3부에서 다루는 저자의 성찰여정은 어릴 적에 '어머니 장롱에서 돈을 훔치다'라는 고백으로부터 시작된다. 저자는 선 수행을 하기 전에는 형편없는 마마보이었다고 스스로 단정함에도 불구하고, 다른 한편

으로는 어린이답지 않은, 의젓한 자기성찰을 보이기도 한다. 1975년 대학교 2학년 여름방학 때 <숫타니파타>를 접하면서 시작된 불교와 인연에 이어 선도회의 종달(宗達) 이희의(李喜益) 선사부터 참선지도를 받으면서, 인가(印可) 및 선도회의 제 2대 지도법사직을 승계하는 과정을 비롯해, 이후 송산 선사님과과의 만남, 대중 강연 및 본격적인 성찰의 끝까지 그리고 2009년 8월 14일 재가 중심의 종교법인 (사)선도성찰나눔실천회 설립인가까지 씀 없이 달려온 성찰과 나눔의 40년간 여정을 일목요연하게 소개한다.

결론적으로 이 책에서 보여주는 서강대 참선수업 수강생들의 성찰에 대한 진지한 열망과 저자의 지난 40년간의 치열한 수행 여정은 이 시대 사람들의 성찰과 나눔의 삶을 향한 좋은 길잡이가 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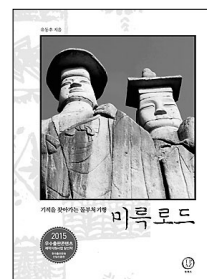
김주일 기자 kimji4217@hyunbul.com

저자 박영재는?
1955년 태어났으며 거사호는 법경(法鏡)이고 현호는 무난한(無難軒)이다. 서강대서 입자물리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1983년 3월부터 6년 반 동안 강원대 물리학과 교수를 역임했다. 1989년 9월부터 서강대 물리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서강대 물리학과장, 교무처장, 자연과학부 학장을 역임했다. 1975년 10월 선도회 초대 지도법사인 종달 이희의 선사 문하로 입문한 박 교수는 1987년 9월 선사계서 설정한 간화선 입실점검 과정을 모두 마쳤다. 1991년 8월과 1997년 1월 화계사에서 송산 선사로부터 두 차례 입실 점검을 받았다. 1990년 6월 종달 노사 입적 후 지금까지 선도회 제2대 지도법사 직을 수행해 오고 있다.

미륵, 기적 염원하는 민초들의 희망

미륵로드

유동후 지음 | 토파즈 펌 1만 5천원



모든 사연이 전해 지지는 않으나 어느 땅 어느 곳에 미륵이 섰을 때, 우연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무슨 까닭에 땅 속에서 불속 미륵불이 솟아났고, 꿈에 현몽한대로 가보니 미륵이 서 있어 예뻐하여 모셨다. 강에서 뱃사공이 건져 올린 미륵도 있고, 바다에서 끌어올려 모신 미륵도 있다. 마을의 수호 불인 미륵, 발두령과 야산에 방치되어 그냥 지나치기 쉬운 미륵, 옛 절터를 지키는 돌미륵을 찾아가는 답사 길은 내 안의 기적을 염원하는 길, 잃어버린 '나를 찾아 떠나는 여행'이다

무심코 지나치면 알 수 없지만, 우리 산천 어딜 가든 심심찮게 만나게 되는 것이 미륵, 옛 절터를 지키는 돌미륵을 찾아가는 답사 길은 내 안의 기적을 염원하는 길, 잃어버린 '나를 찾아 떠나는 여행'이다

무심코 지나치면 알 수 없지만, 우리 산천 어딜 가든 심심찮게 만나게 되는 것이 미륵, 옛 절터를 지키는 돌미륵을 찾아가는 답사 길은 내 안의 기적을 염원하는 길, 잃어버린 '나를 찾아 떠나는 여행'이다

감나는 불상들, 이 책은 그런 돌미륵을 찾아 나서기 위한 일종의 가이드북이다. 미륵부처님은 석가모니불이 열반하고 나서 56억 7천만 년 후에 인간 세상에 내려와 세상을 교화하기로 예정된 부처님이 다. 까마득한 미래에 이 땅에 내려와 중생을 구원한다는 미륵하생신앙은 불가능해 보이는 미완의 꿈, 그러나 끝내 완성되고야 말리라는 희망과 믿음의 신앙이다. 백성들은 전쟁과 기근에, 그리고 통치자들의 억압에 시달릴 때마다 도처에 돌미륵을 세우고 기적을 염원했다. 가난하고 애절한 삶을 살아가는 민초들 모두 도술천

내 안에 기적이 필요할 때는 전국의 숨은 미륵불 만나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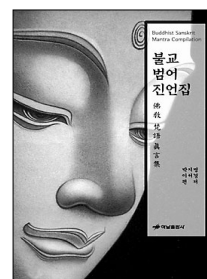
에 올라가 이 지근지근한 고통으로부터 해방되길 희망하고, 난세에 어서 빨리 미륵불이 나타나 구원해 주기를 갈망했다. 석가모니불, 비로자나불, 아미타불, 약사불 등 여러 부처님이 있지만 그 중 백성들에게 가장 친근한 부처님은 아마도 기적을 바라는 미륵부처였을 것이다. 민초들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눈물을 닦아주고 희망을 꾸꾸어 하던 미륵부처님. 천 년 세월 비바람을 맞은 불상들, 이름 없는 돌덩어리 같은 모습이지만 옛 선조들이 간절히 불공을 빌기 위해 조성한 불상이를 람없다. 친숙하면서도 어딘지 모르게 경외감과 목직한 위용이 느껴지는 얼굴들, 묵직한만큼이나 아련한 세월의 무게가 실

김주일 기자

티베트 불교 진언 산스크리트로 풀어내다

불교 범어 진언집

박지영, 이서경 편저 | 하남출판사 펌 1만 9천원



부처님 나라인 인도를 떠난 불교의 언어는 다양하게 변화하면서 그 명맥을 유지하려고 했다. 팔리어, 스리랑카의 싱할라(Sinhala)어, 티베트어(Tibet)인 서장(西藏)어, 실담(悉曇)어, 한자(漢字), 한국어, 일본어 등을 지나면서 불교의 언어는 그들 고유의 문화와 함께 아름답게 꽃을 피웠다. 또한 부처님 제자들은 수차례의 경전 결집을 통해 구전으로 전해 내려오는 말을 문자화시키는 작업도 진행했다. 여기에는 남방불교의 팔리어와 대승불교의 한자와 한국어와 일본어 그리고 티베트 서장이 포함되며, 각 나라마다 그들의 대장경을 만들어 불교를 유지시키고 대중화하여 꽃 피우려고 노력했다.

불교는 참으로 위대한 종교이다. 포용성과 자유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더욱 매력적인 종교이다. 우리나라는 사실상 불교와 오래된 인연을 갖고 있지만, 그것이 삶의 일부처럼 스며들어 존재하고 있어 불교의 다양한 언어에 대한 해석의 기회가 많지 않았다. 때문에 필자는 무수한 세월을 거쳐 구전된 불교 언어를 그것의 근본인 산스크리트의 입장서 새롭게 조명하고자 했다. 이 책은 지금까지 구전된 근본불교, 대승불교, 티베트불교의 다양한 진언과 계승, 경구들을 모아 최대한 산스크리트의 기본 입장서 정리했으며, 여기에 한글 음역과 해석을 달아 가장 본질에 가까운 진언과 계승을 알 수 있게 했다. 또한 <승엄주진언> <불정존승진언> <수구즉두다라니> <신묘장구대다라니> <관세음보살 42수진언>까지 대승불교의 대표적인 5대 진언을 원문에 가깝게 기술했으며, 그에 해당하는 한자어를 한글로 표기하고 한글 해석을 덧붙여 독자들이 불교 원류의 향기를 그대로 느낄 수 있게 했다.

김주일 기자

관념의 미로에 빠지지 않은 직관적 시어... 68편 詩 묶어

허공에 점하나 찍어놓고

소암 지음 | 문지사 펌 1만원



"한 되들이 순백의 곡차 들이키고 범상에 올라 사자후를 의지던 백학도인이여, 귀골로 잘생긴 현현장부여 듣고 계시는가"(설봉선사 中에서)

들누른 것은 개나리/귀로 들으니 종달이가 하늘에서 울고/메미는 나무에 붙어 땀땀 생각으로 마음을 찾으니 행방이 묘연하다.....(마음이 부처 中에서)

불교신문 논설위원을 지낸 시인 소암이 예순 여덟 편이나 되는 시를 한 권에 묶어 책을 펴냈다. 제목은 <허공에 점하나 찍어 놓고>이다. 난해한 시어들과 달리 저자의 시들은 수필을 읽는 것처럼 책장이 술술 넘어간다. 관념의 미로에 빠지지 않고 시어들이 직관적이기 때문이다. 저자는 분별을 넘어 바로 사물의 정수에 접근하며, 사소한 것에서 중대한 의미를 발견하고, 중대한 의미를 다시 사소한 일상사로 돌릴 줄 안다.

그러므로 꽃이나 별을 노래한 시가 화두를 다른 작품과 별개의 것이 안되고, 시경(市井)의 일을 읊조린 마음이 그대로 산사의 유한함을 표현한 심경과 맞아 떨어지는 결과였다.

이원섭 시인은 "광주를 노래하면서 그 피비린내 나는 현장을 난조나 되는 듯이 높은 품격속에 승화시킬 수 있던 것을 생각하면 아무래도 선수행서 얻은 역량인 듯하다"며 "더욱 정진해 선시에 사람 있음을 보여 주셨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정공계 시인도 해석을 통해 "워즈위드와 중국 선시의 배미. 한산시(寒山詩)의 독창적인 대자유를 방불케 하는 소암 시인의 선시(禪詩)는 무한한 우주와 상응하며, 참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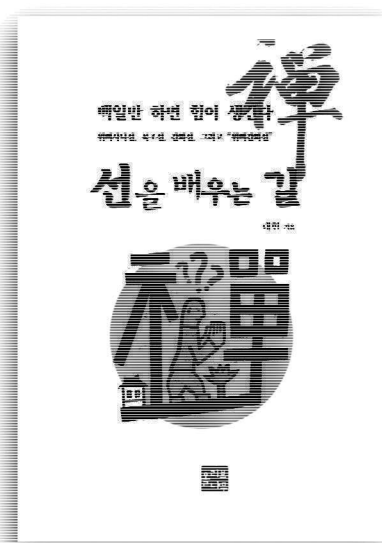
삶의 이상향과 생명가치를 구현시키고 있다."고 극찬했다.

소운 스님(하바드대 박사, 동명대 교수)도 "사람과 자연, 그리고 깨달음이 조화로운 이 시대의 대표적인 선시 작품이 감로수가 되어 메마른 인간의 삶과 영혼을 적셔준다."고 평했다.

이번 시집은 1990년에 출간, 절판된 지 25년 만에 독자들의 끊임없는 요청이 있어 재출간되었다. 소암 시인의 선시(禪詩)는 독특해서 출간 당시 선시 열풍을 일으켰다. 단순하고 소박하며 산중 수도승의 고뇌와 깨달음, 인간과 자연에 대한 사랑이 늦가를 별명으로 핀 국화처럼 향기로움이 가득하다.

김주일 기자

백일만 하면 힘이 생긴다!



* 대현 지음 / 302쪽 / 값 15,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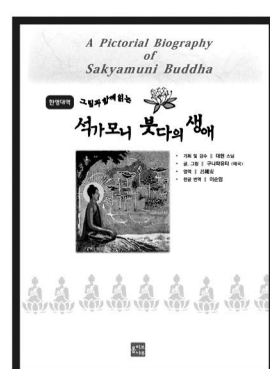
천근만근 짐을 내려놓은 듯한 흥분분함, 솟아오른 해가 천지를 환히 비추는 것 같은 충만한 존재감, 나와 나의 경계가 일시에 사라져 버리는 대자유함, 그 길은 결코 멀지 않습니다.



누구나 어디에서나 쉽게 도전할 수 있는 선수행의 길라잡이.

'고요히 비움'을 바탕으로 삼고(獨坐), '알아차림'으로 마음이 들뜸에 빠지는 것을 경계하면서(위빠사나), "이 뭐고?" 하고 화두를 쟁기으로써(간화선) 산만한 마음을 강한 집중으로 삼매에 들게 하여 무명번뇌를 조복시켜 깨달음에 이르는 길. 이것이 위빠사나 수행의 장점과 사마타 수행의 장점을 잘 살린 '위빠간화선'이다.

간화선 수행법은 남의 나라를 침공할 때 특공대를 보내어 수도를 점령하고 왕을 생포하여 항복을 받은 다음 그 나라의 군대와 백성을 조복 받는 것처럼 속전속결의 법이다. 위빠사나 수행법은 작전을 펴서 적의 군대를 무력으로 점점 섬멸하여 수도를 점령하고 왕을 붙잡아 항복시키는 것과 같다. 위빠사나 수행과 간화선 수행을 병행하는 법은, 처음엔 적의 군대를 작전을 펴 무력으로 점점 섬멸하다가 어느 시점에서 특공대를 보내어 수도로 쳐들어와서 왕을 생포해 항복을 받는 경우가 할 수 있다. —본문 중에서



그림과 함께 읽는 석가모니 붓다의 생애

* 기획 및 감수 || 대현 스님
* 240쪽 / 컬러 / 값 12,000원

가장 행복한 나눔 —
"부처님의 생애"를 선물하는 일입니다

천지를 운행하는 거대한 섭리를 향해 던진 큰 물음표가 있었기에, 그리고 해답을 얻고야 말겠다는 구도어의 열정이 있었기에 부처님은 세상의 그 누구도 알지 못한 큰 깨달음으로 세상에 빛을 밝혀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이 진리의 빛 안에서 진정한 쉼 곳을 찾았고, 구원을 얻었으며, 삶과 자연과 자기 자신의 가치에 눈을 뗄었습니다. 부처님의 생애가 주는 감동이야말로 우리 인류가 진정으로 먹어야 할 영적인 양식이 아닐까요! —대현 스님 ('선승의 길'의 저자)



선승의 길

* 대현 스님 지음 / 280쪽 / 값 12,000원

오직 수행으로만 일관하여 50만거를 성만하신 대현 스님의 수행기와 바른 참선법.

전강, 향곡, 경봉, 성철, 송담, 진제 스님 등 선지식을 받고 '메마른 땅에 단비를 맞은 것처럼' 공부 농사에 영양분을 공급 받았던 내력과 함께 간화선 수행자들이 범하기 쉬운 병통을 지적하고 심우도에 따라 기초공사를 다져 하루종일 화두와 함께 가고 오고 행하는 길을 가리켜 보인다.

법보시를 지원합니다.

산청 정각사

경남 산청군 시천면 지리산대로 1440-28

010-9772-4588

055) 972-1109



우리보리나무

전화 8274-1226, 010-7755-2261 팩스 031-629-6983 이메일 yoyoyi91@naver.com